입지자만 10명… '무주공산' 각축전

시의원 3명 '지역구 발판' 구청장 도약 꿈꿔

민주 텃밭서 참여당 옷 입은 송병태씨 관심

■구청장 입지자

전갑길 구청장의 광주시장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입지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있다. 각 출마 후보들은 조심스럽게 '물밑 행보'를 펼치며 세를 늘려가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명된 민주당 입지자 8명 등 모두 10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선 현역 시의원 3명 모두가 탄탄한 의정활동 경험을 내세워 구청장에 도전하고 있다.

강박원 시의회 의장은 '의장 프리미엄'을 활용해 각종 행사에 참석,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전 영암군수 등을 지낸 행정 전문성과 재선 시의원, 시의회 사상 최초 연임 의장 등 풍부한 의정 경험 등 차별화된 리더십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광산구 약사회장을 역임한 유재신 시의원도 재선 의원으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 경험을 앞세워 단체장 도전에 나서고 있다. '작은 행정, 큰 봉사'를 캐치 프레이즈로 내건 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인구가 유권자 밀집지역이어서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다. 전국 의회 최초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등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성과도 눈에 띈다.

민주당 시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정남 시의원도 출마의 뜻을 강력히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구의원, 교육위원, 재선 시의원 등 '지방자치 의정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것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의회에서 행정자치·산업건설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경험과 민주당 광주시당 대변인으로서 당과의 소통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전직 구청장끼리의 대결도 눈에 띈다. 최근 국민참여당에 참여한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은 기존 지지세력을 바탕으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민주당 텃밭에서 국민참여당 후보로 광산구청장 도전에 나선 것을 의식해서인지 "지방자치의 독점을 깨고 경쟁체계를 조성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꽃 피울 수 있도록 그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선 1, 2기 서구청장을 지낸 이정일 민주당 광주시당 수석부위원장도 이번엔 고향인 광산구에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지역 자치단체장 후보 중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이 수석부위원장은 "오랜 공직생활을 토대로 중앙부처와 전국 각지에 남아 있는 많은 인맥, 광산 출신의 김동철 국회의원과 이용섭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인들과 함께 활기찬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환규 전 북구 부구청장도 '깨끗하고 참신한 행정가'를 자임하며 도전장을 냈다.

김 전 부구청장은 "35년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다양한 현장 행정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고향 발전에 헌신하기 위해 뜻을 세웠다"면서 공직사회, 공단 입주 기업 대표와 노동자, 전문직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지지기반을 확대하며 경선에 대비하고 있다.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도 지난달 28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고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윤 전 의장은 "젊고 참신하며 도덕적인 사고와 철학을 갖고 있는 인물이 광산구를 새롭게 바꿀 최적의 기회가 왔다"면서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내고 구민 모두가 자부심을 갖는 새로운 광산구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전 의장은 1991년 초대 기초의원, 2002년과 2006년 교육위원으로서 폭넓은 의정경험과 행정학자로서 전문성, 참신성, 도덕성, 개혁성을 두루 겸비해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찾고 있는 적임자라며 경선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동신대 초빙교수는 "사회적 연대와 통합이 절실한 시대"라며 "광산을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생산의 근거인 기업을 일구고 키워가기 좋은 공간으로 가꾸고 싶다"고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이번 광산구청장 후보군 중 유일하게 대기업 임원출신 김종오 김대중 평화센터 위원이다. SK그룹 상무를 지낸 김 위원은 "광주의 최대 현안은 지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기업활동 경험이 있고 정책적으로 훈련된 일꾼이 광산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정책 추진, 영산강 물고기가 풍영정천까지 올 수 있는 환경조성 등을 약속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옛 전남도청 별관 존폐 논란 때 맹활약한 장원섭 도청원형보존을 위한 시·도민대책위 상황실장도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단체장 도전에 나섰다.

장 실장은 "광주지역이 특정 정당의 독점으로 폐해가 심각하다. 민주화의 도시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다. 이 틀을 바꾸기 위해 나섰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진보신당에서는 윤영배 당협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만간 당 정책 의견 등을 수렴해 후보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광산구청장 입지자 〈가나다 순〉

강박원(72)	김종오(51)	김환규(59)	민형배(48)	송병태(71)	유재신(50)	윤봉근(54)	이정남(53)	이정일(63)	장원섭(45)
민주당	민주당 입당예정	민주당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광주시의회 의장	김대중평화센터 위원	전 북구 부구청장	동신대 초빙교수	전 광산구청장	광주시의원	시당 위원장 특보단장	광주시의원	시당 수석부위원장	도청 원형보존 대책위 상황실장

1선거구 6명 경합 뜨거운 '경선' 전쟁

비아·첨단서 민노당 후보 가세 '흥미'

■시의원 입지자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라 시의원 자리가 한 석 늘어난데다 현역 시의원 3명 모두 일찌감치 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나서면서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뜨겁다.

특히 구청장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시의원 3명이 광역의원으로 U턴 할 경우 광산구 광역의원 선거는 더욱 치열해질 것이 분명하다.

1선거구(송정1·2동, 도산·어룡·평·본량·삼도·동곡동)는 광산구 광역의원 선거구 중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 광산구 광역의원 선거구 중 가장 뜨거운 '경선'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승진(사) 광산구 어르신을 사모하는 모임회장, 김익주 전 구의원, 김형수 한사랑 노인복지센터 이사장, 박영권 광산시민포럼 상임대표, 전양복 구의원, 전영남 어룡초등운영위원장 등 6명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박 상임대표는 25년간의 송정 JC 활동을 통한 사회활동과 환경 전문가임을, 전 구의원은 2선 구의원에 구의회 의장 경력 등 풍부한 의정경험을 각각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회장은 청소년·복지 부문에 대한 사회활동을, 김 이사장은 농민회, YMCA, 참여자치 등 시민·사회운동 경험을, 전 위원장은 민주당 광산 갑 청년위원장과 광주시 자율방범대원 이사 등 폭넓은 사회활동 경력 등을 앞세워 광역의원에 도전한다.

2선거구(월곡1·2동, 운남·우산·신흥동)에서는 나명선 광산 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신상배 민주당 광주시당 기획조정국장, 정윤 (사)광산구 장애인협회장, 허문수 민주당 광주시당 민원실장이 출마할 예정이다.

■광산구 광역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김승진	광산구 어르신을 사모하는 모임 회장
	김익주	전 구의원
	김형수	한사랑 노인복지센터 이사장
	박영권	광산시민포럼 상임대표
	전양복	구의원
	전영남	광산갑 청년위원장
2	나명선	광산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신상배	민주당 광주시당 기획조정국장
	정 윤	광산구 장애인협회장
	허운수	민주당 광주시당 민원실장
3	김길원	광산구청장 비서실장
	김선수	민주당 광주시당 광산을 부위원장
	문오권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
	송경종	구의원
4	고광덕	전 구의원
	김민종	구의원
	신영용	민주당 광주시당 교육연수위원장
	황차은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문오권 민주당 광주시당 부위원장이 3선거구(신가·하남·임곡·신창동)에 출마할 예정인 가운데 송경종 구의원과 김선수 민주당 광주시당 광산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도 광역의원 도전에 나선다.

광주시의회 보좌관 협회장도 역임하고 있는 문 부위원장은 8년 동안의 시의원 정책보좌관 활동 경험을 내세우고 있고, 송 구의원은 수완지구 명품도시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

4선거구(비아·첨단1·2동)는 김민종 구의원과 신영용 민주당 광주시당 교육연수위원장이 출마의 뜻을 밝히고 있고, 유일하게 황차은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 가세해 민주당, 민노당 대결 구도가 벌어질 태세다.

고광덕 전 구의원은 출마를 고민중이고 김길원 광산구청장 비서실장은 3~4선거구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쟁점&변수

①민주당 '전략 공천' 이뤄지나

②국민참여당 바람(盧風) 불까

③김동철 시당위원장 영향력은

민주당이 다른 지역에서처럼 우위를 점할 수 있느냐가 관심이다.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송병태 전 청장이 국민참여당 후보로 나설 채비이기 때문이다. 필승 후보를 내기 위해 '전략 공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 대목이다.

여기에 민주당 시당위원장인 김동철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이곳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경선에 뛰어든 점도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 가운데 하나다.

관선 한 차례를 포함해 민선 2, 3기 광산구청장을 지낸 송 전 청장은 현재 탄탄한 조직력 등을 갖추고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다른 여타 후보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년 추모기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국민참여당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 광산구청장 선거 판도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선 송 전 청장의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력을 상쇄할 인물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민주당 소속이거나 앞으로 입당할 입지자수는 8명에 이르고 있다. 당내 경쟁만 8대1로 광주에서 가장 치열하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들 후보군을 압축하기 위해 경선방법을 '시민공천배심원제도'로 적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입지자들은 '시민공천배심원제도'를 뚫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 교통정리(?) 차원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2명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살피며 관계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광산구가 예전처럼 농촌 중심의 도시가 아닌 외지인 비율이 높은데다, 신흥도심 개발 등으로 도농복합도시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의로 젊고 경제마인드에 개혁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공천할 수 있다는 점도 '경선'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후보공천에는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의 영향력도 어느 정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용섭 의원이 광주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터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데다 시당 위원장 몫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